

고발 정신

민 칠 기

며칠 전 어느 일간 신문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놀란 일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사고율(사고건수)은 약간 감소했지만 대신 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져서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 간다는 것이다. 끔찍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기막힌 것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건수가 관리자가 없는 직장보다 더 많았다는 기이한 현상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할 숙제로 남겠지만 이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필자로서도 언뜻 설명하기가 어렵고 서글픔마저 안겨준다.

자세한 설명과 해명은 다음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당장 강조해야 할 일은 그래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서 제 구실을 다하도록 경영층에서 격려해주고 독려한다면 이런 기현상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고를 줄이려면 우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체 하나하나가 안전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의

80퍼센트 이상이 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두고 있다. 의식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에 정성을 쏟고 또한 그 교육을 계속 반복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 안전의 의식화는 우리의 궁극의 목표인 동시에 또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은 모든 구성요원 하나하나가 안전요원이 되고 관리자가 되었다는 입장에서 주위에서 불안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견되는 즉시 지적해 주고 일깨워 주어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전개시켜 보고자 한다.

흔히들 그 사회가 민주화를 빨리 이룩하려면 시민들의 투철한 고발정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실로 올바른 지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고발정신이 약하다.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이것이 무시무시한 해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성의 큰 병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사실 사회의 해독

은 돌고돌아 자기에게 또는 자기의 가족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위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내일 내일을 가리기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어느 노상을 지나가는데 별안간 강렬한 광선이 시선을 흐리게 해서 살펴보았더니 조그만 공장 안에서 전호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도시인들은 흔히 겪는 일이지만 전기용접 시에 발생하는 백광은 우리 시력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이때에는 반드시 차광판을 세워서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내 도처에서 이러한 일이 늘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이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빨리 그 장소를 피하면 된다는 이기심의 발동이 있을 뿐이다. 이때 선뜻 나서서 그 용접사에게 이유를 달고 다른 행인들에게 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타이르면 대부분의 경우 수긍하고 잘 들어준다. 왜냐하면 그들도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 유해광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차광판을 설치하고 작업한다면 그 다음부터 지나가는 행인은 유해광선의 해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그마한 노력과 성의가 시초가

되어 그 사회는 사고가 좀더 줄어들 수 있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건설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인데 중량물을 취급하는 크레인이나 기중기의 바로 밑에서 서성거리면서 신호도 해주고 일을 도우려고 왔다갔다하는 작업자들을 많이 목격한 다.

필자로서는 그런 현장을 볼 때 마다 아찔아찔 해진다. 중량기 밑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사람이 다가가면 안된다. 언제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어 떨어질지 모른다. 이것도 보는 즉시 제지하여야 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따끔히 경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인명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체계나 계통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아무나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고 충고자가 되어야 하며 또 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두말없이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풍토를 이룩하여야 될 것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손실액이 직접 간접비를 합쳐 무려 3조5천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잘못되어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쓴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이다. 국민 각자가 안전의식에 좀더 눈뜨고 각성한다면 이 엄청난 숫자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그 자금은 복지사회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7]

〈필자=안전전문가〉